

신년사

불기 2540년 새해를 맞는다. 산중에 달력이 없는 바를 내세우는 마당에 굳이 새해가 있을까보나.

또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세세생생의 연면(漣綿) 가운데 그 어디에 묵은 해가 있고 새해가 있었는가.

그런데도 세상의 일이란 그 일들의 매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 마디 매듭이 이루어져야 다음 매듭을 향하여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고대인들이 천문(天文)을 깨달아 달력을 만든 것도 시간에 대한 창조적 인식 때문이었으리라.

그 덕택에 우리의 우리에게도 역사를 구분하는 일을 크게 평가하거나 혹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하나의 정진을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

는 것이다. 그럴진대 새해를 맞는 우리로서는 어떤 일을 발원해야 마땅하겠는가. 이땅에 불법이 건너온 이래 1천6백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가운데 신라의 화랑불교야말로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10대 혹은 20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젊은 불교, 심상한 불교, 푸른 불교 그리고 정열의 불교를 지향함으로써 원숙한 불법의 경지가 자취 높은 불교로 정제되는 것을 혁신적으로 극복하는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화랑불교가 통일신라 이래 그 힘을 잃은 뒤로는

그만한 젊음의 아름다운 정진이나 신행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뜻있는 불교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 불법을 만나게 해야 한다, 젊은이에게 배워지지 않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라는 제언들을 외쳤던 것이다.

과연 원시불교 교단의 구성은 고려의

그 부정적 측면에는 불교가 너무 늙었다는 비판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어느 학설에는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이고 불교는 체념의 종교라는 어이없는 주장도 있는 것을 기억한다.

이런 처지에서 조계종이 새해를 '불교 청소년의 해'로 지정한 것은 때늦은 느낌과 함께 매우 절실한 과제를 내건 일이기

는 어머니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과 불보살의 자비를 일체시키면서 그 사랑은 철저히 기성세대의 것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미덕의 그늘에는 불교가 어린이나 젊은이를 독립된 대상으로 만나지 않는 것도 지적된다.

과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는 노인이 및 기성세대의 기복신앙이나 장례의식 이 아니면 매우 개인주의적 행위로 지탱되고 있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를 낳는다. 그래서 '산중불교에서 사회불교로!' 라는

명제는 조선조의 역불정행으로 인한 비사회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린이불교와 종교대학생불교운동을 펼친 몇몇 원로 및 중진스님을 기억하고 있거나 이제는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천태종이든 어느 종이지 않던 당면과제로서의 새싹불자키우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종교의 청소년 전도의 폭발적인 확대에 견주면 거의 보잘것 없는 우리 불교계 새싹불자의 공백이 드러난다. 이제까지는 '보살신앙'으로 유지된 불교가 하더라도 장차의 새로운 첨단문명사회에서의 불교적 영향력을 이끌어갈 새싹불자 없는 더이상 불교가 형화(形骸化)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바야흐로 서구사상의 2분법이나 유일신론의 종교가 21세기의 새로운 전장에서 그 역할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합당한 자기혁신으로서의 미래불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도 올 한 해만을 '불교청소년의 해' 운운의 전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새해야말로 '새싹불자'를 하나하나 키워냄으로써 내일의 불교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 희망의 실현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아기부처를 목욕시키는 공양은 그날만의 일이 아니다.

새싹불자를 키우자

제지도 있었거나 많은 청소년 제자들을 받아들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의 천재적 감수성을 펼치는 일을 가능케 했다. 금강강에서 부처님과 치열한 대화를 할 수 보라나 그밖의 수많은 초기 청년출가자들이 아마도 오늘에 이르도록 불교의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갖춘 우리 불교이거니와

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한 종교(宗家)의 그것만이 아니다. 무릇 불교계의 어느 곳에서도 이 사업은 실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적 정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데서 불교와의 동질성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이 정서의 주체

각 종단 종정스님 신년법어

태고종 보성스님



사람 마음에 따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 착하고 바르면 사회는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람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악해지면 세상은 어둡고 사나워집니다. 한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과업들은 진정으로 참회하고 또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등을 밀던 손을 화해의 손길로 바꾸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걸던 발을 화합의 길로 들여놓아 다같이 안락하고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독을 뽑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는 내란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눈 낮은 태도를 버리고 남과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그 이익을 생각하는 눈 높은 이타생활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음 깨끗하면 세계가 깨끗

천태종 도용스님



새해에는 도덕의 세상이 펼쳐지는 자비와 사랑의 한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고 자비를 행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맡은바 처해 있는 곳에서 다같이 노력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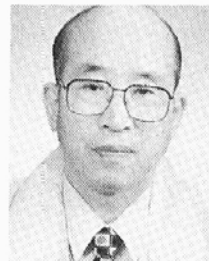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사회와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이 남을 지도하고 사회와 인류를 구제하는 마음을 내기에 앞서, 자기 스스로 도덕적 생활을 실천할 때 정절로 이나라는 불국토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정한 사람들이 평화와 안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적극 참여하여 병들어 아파하는 이 나라에 도덕이 뿌리를 내리는 건전한 새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도덕과 자비행의 실천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도모하며 희망찬 병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조국의 통일 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도덕적 생활하면 절로 불국토

진각종 각해대종사



법신불의 광명이 새롭게 밝았습다. 종성들의 심성에 각해심인(覺海心印)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각대도는 각해심인의 큰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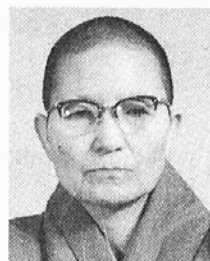
심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주인공이며 만법의 중심입니다. 나의 영혼한 본체입니다. 법계는 심인의 신비로운 조화입니다. 심인은 안을 밝히고 밖을 비추줍니다. 심인의 큰 바다는 사바의 고통을 녹여줍니다. 심인의 세계는 진실합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이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은 경제인이 되고 교육자는 교육자가 됩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행을 하고 종교인의 말을 하고 종교인의 마음을 가집니다.

새해에는 심인을 살려 이웃과 함께 사는 만다라 정토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을 참회하고 자기를 잘 써서 이웃에게 베풀어 줍시다. 사회정의도 민족의 통일도 심인을 살리는 자기 개혁의 행동화에 있습니다. 진각대도(眞覺大道)의 성취는 지금 여기 심인을 밝히는 사람에게 나투어 있습니다.

자기개혁으로 안팎을 비추자

보문종 혜안스님



우리는 새로운 빛을 받으면서 어찌와는 전혀 다른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을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그대로의 의식과 어찌 그대로의 정신을 지닌채 새 아침의 찬란한 광명을 바라다본다면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의 새 아침에 어찌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느끼므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은 채 그냥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해가 가고 두해가 가도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마음속에 새로운 목적을 새겨넣어야 합니다. 나도 역시 탐진치를 버리고 법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참나로 전환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직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 아침에 목적을 세웁시다. '참나를 깨달아 참다운 삶을 살자'는 다짐을 굳게 해봅시다.

관음종 대천스님



歲暮丙子 蓮宇通 如是觀音 加護力 國泰民安 樂業邦 子自業 除萬厄

우리의 인생은 인연업생으로 자아가는 숙객(宿客)에 지나지 않지만 깨달음의 서원을 가지고 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년들어 해마다 국가에 여러가지 재앙이 발생해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에 겪고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 인과법에 비추어보면 성실히 준비하지 않은 것의 결과이며 업보라 하겠습니까. 종교의 위덕(威德)은 믿음이 진실했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이 천하에 존재하며 발전과 영광의 역사를 가질 수 있음은 부처님 정법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진실한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사회는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병자영신(丙子迎新)에는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인정이 넘치는 태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총지종 록정대종사



사람은 누구나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나 우치한 중생은 무명과 탐진치에 사로잡혀 악업만을 태산처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의 이수리장으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바르지 못하고 자비스럽지 못하여 때문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 그 마음의 청정함에 따라 불토가 청정할 것이다. 세상을 구하고 다스리는 길은 바른 마음이 근본이 된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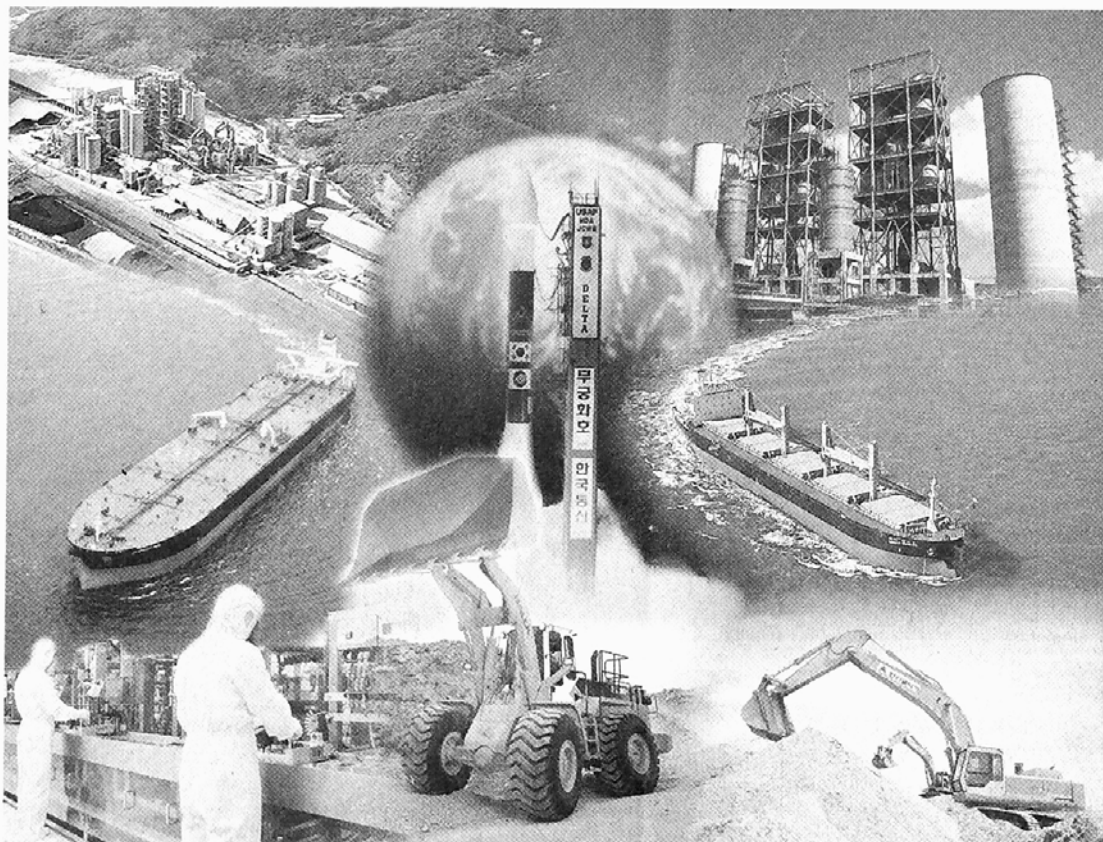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른 마음, 수행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속에 있는 것이요 오직 부처님의 정법을 통하여 지심으로 참회하고 보살정신의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정신,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며 수행의 자세입니다. 보살도를 실천함에 절로 우리 주변은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의 길은 일상 속에 있나니

HALLA 謹賀新年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라



信賴와 創造의 企業, 漢拏

지난 한해 보내주신 聲援에 感謝드리며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祈願합니다.

여러분의 漢拏는 올해에도 重工業, 自動車部品, 建設, 시멘트, 貿易, 海運, 創業支援投資, 情報通信, 필름 및 製紙, 環境事業 등 여러 分野에서 더욱 信賴받는 企業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漢拏의 ULTIMATE GOAL(窮極目標)은 最善의 品質과 最善의 生産性, 最善의 競争力을 바탕으로 하는 堅固한 基盤위에 나뭇대로의 企業文化와 企業道義를 創設하고 이러한 基盤위에 企業의 無限한 繁榮을 追求하면서 國家社會에 나뭇대로의 義務를 다하는 것입니다.

漢拏는 任職員들의 訓練에도 力點을 두어 오늘날 民主社會에 가장 正直하고, 勇敢하고, 열린 意識을 지니고, 責任질 줄이는 가장 훌륭한 市民을 育成하고 있습니다.

